



Kyo.Prot.N. 43/2020
교토교구 신자분들께

2020년 부활절 교토교구 주교 메세지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는 인사를 예년처럼 하고싶습니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주님 부활을 기뻐하며 서로 축하의 말을 할 수 분위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생명의 근원, 아낌없이 주시는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작년,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방일의 테마는『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며, 정말로 온세계가『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분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순절의 테마는「성령의 의해 새롭게 된다.」입니다만, 사순절 그 자체가 미사 중지라고 하는 시련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 곤란한 시기를 미사, 그리고 성체의 의해 양육된 신앙을 다시 되돌아 볼 때로 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호소하고 계신는 것 처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 위기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함을 지금이야말로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분들,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유하기를, 또한 의료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교단이 작성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를 위한 기도』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유대로 맺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톨릭교회로서도, 기도가 가지는 힘에 신뢰를 잃지 않고, 미사를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 합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염이 퍼지지않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동으로서, 할 수 있는 희생을 봉헌합시다. 교토교구가 미사를 자숙하는 목적은『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의식하지 않은 채 감염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협에 빠지게 하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부활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신앙을 새롭게 하여,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하여 전인류에 평온한 날이 돌아오기를, 자애 깊으신 성모 마리아와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요셉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합시다.

2020년 4월 11일 부활성야
가톨릭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츠카요시나오

+ *Paul Y. Otsuka*